애착의 세대간 전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of Relationships
and Infant Attachment Patterns

장 미 자**
Jang, Mi Ja
조 복 희***
Choi, Bok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from mother's internal working model of relationships formed in her childhood and infant's attachment patterns and (2) the associations among maternal working models,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attachment patterns. The subjects were twenty 12- to 20-month-old infants and their mothers.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1996) was used to assess mother's internal work model of relationships. Interviews were audio-recorded and transcribed verbatim. Each dyad was videotaped in the modified Ainsworth Strange Situation(1978) and filmed for 3 minutes in the Questionaire Situation of Smith and Pederson (1988).

Mothers were classified as autonomous(F), dismissing(Ds), preoccupied(E), or unresolved/disorganized(Ud). Infants were classified as secure(B), insecure-avoidant(A), or insecure-resistant(C). Exact A/B/C/D and Ds/F/E/Ud agreement was observed in 55% of the dyads. Maternal sensitivity was related to infant attachment patterns but not to maternal working models.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경희대 아동·주거학과 강사
*** 경희대 아동·주거학과 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유대는 인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러한 초기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주로 어머니와 영아간의 '대상관계'로 설명하였고,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Bowlby(1982)는 이러한 관점이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유대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행동 제어 체계(behavior control system)의 개념을 적용하였고, 동시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행동을 바라보는 동물행동학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애착이란 특정 애착대상과 접촉하고 근접하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Ainsworth, 1969)로서,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가지며 영아는 애착대상과의 접촉과 근접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애착행동(울기, 미소짓기, 매달리기 등)을 나타낸다(Bretherton, 1992). Bowlby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애착행동은 진화의 결과로서 유기체의 생존에 기여하기 때문에 유기체가 성숙함에 따라 행동표현은 변할 수 있으나 전 생애를 통하여 그것의 생물학적 기능은 유지된다고 하였다.

애착연구자들의 관심은 개인이 애착대상과의 애착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에 대한 이전의 정의는 구조화된 격리-재결합 관찰 즉, Ainsworth의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에서 관찰된 특정 부모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행동의 조직화에 대한 기술에 의존하여 안정, 불안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이렇게 측정된 영아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애착의 발달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애착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영아기를 지난 시기의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론의 부족은 애착이론의 발달에 제한점을 가져왔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아기를 넘어 유아(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아동 그리고 성인(Main, Kaplan, & Cassidy, 1985)의 애착을 측정하는 방법의 발달과 타당화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Bowlby(1982)는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를 애착과 관련한 자아의 정신적 표상 즉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서의 개인차로서 재개념화 하였는데 그의 이론은 애착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개념구조를 제공하였다. Bowlby에 의하면 영아는 양육자의 반응성과 활용가능성을 바탕으로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를 형성하며, 이 조직화된 기대가 내적 실행모델이 되어 매일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개인은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내적인 정신적 표상이나 실행모델을 형성하며 이것은 개인의 인성구조에 통합되어 지속된다는 것이다.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장한 이후에까지 내적 실행모델의 형태로 계속된다는 Bowlby의 이론은 영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애착연구를 성인기까지 확대시켰으며, 내적 실행모델 개념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이후 부모로서의 행동 사이의 연계과정을 설명한다. 즉 영아기부터 시작하여 아동기 때 형성된 내적 실행모델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하며, 부모가 되었을 때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녀와 형성

하는 애착관계에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양육행동은 어린 시절 방위가족 부모와의 초기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아 및 부모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애착의 세대간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Bretherton, 1991). 이에 따라 애착이 영아기나 아동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형성되고 유지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애착의 세대간 전이현상에 대한 연구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와의 애착의 질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Morris, 1980; Ricks, 1985),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자신의 부모들을 긍정적으로 회고하는 사람들의 경우 안정애착아를 가지며, 불안애착아의 어머니의 경우 안정애착아의 어머니보다 자신의 부모에게 덜 수용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애착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내 연구들의 경우에는 외국 연구들과는 달리 유의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이현미, 1997; 조혜수, 1995)도 있는 반면에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애착간의 관계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박응임, 1994; 이영환, 1993)도 있어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하지 못하였다. 위의 연구들 대부분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의 심층적인 측면을 측정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질문지 방법은 애착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평가할 때, 피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쉬우며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기 쉽다(박영숙, 1994). 따라서 무의식적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심층적 방법이 필요하다.

George, Kaplan과 Main(1984)은 성인의 내적 실행모델을 분류하기 위하여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1]이라는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성인 애착 면접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정의적 인지적 표상 즉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아동기 애착경험과 그러한 경험이 현재의 기능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심층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Main 등(1985)은 성인 애착 면접을 이용하여 Ainsworth의 낯선 상황에서의 애착유형과 유사한 성인의 내적 실행모델유형을 발견함으로써 영아기 때부터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유형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인 애착 면접을 이용한 많은 연구에서 양육자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양육자 애착유형간의 일치성이 보고되고 있어 부모의 내적 실행모델의 측정이 부모-자녀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고 타당함이 증명되었다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1996). 즉 내적 실행모델이 안정유형인 양육자의 경우 안정애착아를 가지며, 불안유형인 경우 불안애착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일치의 정도가 66%에서 82%로 높게(Fonagy, Steele, & Steele, 1991, 1996; Main et al., 1985) 보고되었다. 이러한 일치성은 일반 아동들뿐만 아니라 임상아동들에 대한 연구(Crowell & Feldman, 1988, 1991; Deklyen, 1992)에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임상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성인 애착 면접에서 불안유형이 과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적 실행모델의 불안유형이 자녀의 행동발달에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성인 애착 면접에서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간의 일치성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내적 실

1) AAI는 1984년에 개발되어 1996년 현재 3번째 수정판이 만들어져 있다.

행모델의 불안유형은 자녀의 안정된 애착형성에 잠재적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의 평가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어떤 측면이 자녀에게 전이되는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의 세대간 전이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다.

외국의 경우, 부모의 내적 실행모델의 평가는 성인 애착 면접을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국내에서는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실정이므로, 부모-자녀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특성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성인 애착 면접을 이용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한편,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Crowell & Feldman, 1991; Fonagy et al., 1991, 1996; Main & Goldwyn, 1984; Main et al., 1985; van Ijzendoorn, 1992; Zeanah, Benoit, Barton, Regan, Hirschberg, & Lipsitt, 1993)은 두 관계의 일치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영아의 애착 조직화에 미치는 어머니 특성의 예측성에 대하여 많이 논의하여 왔다. 즉 안정유형 어머니들의 영아는 안정애착으로, 불안유형 어머니들의 영아는 불안애착으로 이끄는 그 행동적 과정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van Ijzendoorn(1995)에 의하면 부모의 정서와 애착관련 기억을 잘 통합한 안정유형의 성인들은 영아의 행동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이와 반대로 부모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아의 행동에 제한적으로 주의 집중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은 자녀가 보내는 단서와 신호에 주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는데 안정유형의 어머니들의 경우 자신의 자녀와 따뜻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였으며(Crowell & Feldman, 1988), 불안유형의 어머니들보다 더 높은 민감성을 나타내었다(Grossmann, Fremmer-Bombik, Rudolph, & Grossmann, 1988; Ward & Calson, 1995; Zeanah, et al., 1993). 또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질에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Isabella, 1993; Isabella & Belsky, 1991; Smith & Pederson, 1988)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간의 행동적 연계과정은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영아의 애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세대적 전이와 그 세대적 전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적 변인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면접방법을 통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함과 동시에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여 애착유형의 세대간 전이를 규명하고, 어머니의 민감성 측정을 통하여 그 행동적 연계과정을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양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2].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민감성에 의해 연계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2개월에서 20개월 사이의 영아 및 그들의 어머니 20명이었다. 영아는 모두 정상분만아이며 영아의 연령범위는 12-20개월, 평균연령은 16.0개월(SD=2.76)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4세에서 36세로 평균 30세(SD=3.4)였으며, 학력은 고졸이 7명(35%), 전문대졸이상이 13명(65%)이었고,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5명, 나머지 15명은 전업주부였다. 연구대상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50만-340만(평균 222만원)이었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명(15%), 전문대졸 이상이 17명(85%)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과 관리직이 6명(30%), 사무직이 9명(45%), 생산 판매직이 5명(25%)으로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중류계층이었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1)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의 측정은 George, Kaplan과 Main(1996)의 성인 애착 면접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성인 애착 면접은 전적으로 애착주제에 관한 것으로 매우 구조화된 질문지 형식과 좀더 비형식적인 임상적 면접의 두 가지의 특징을 포함한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지 형식에 따라 순서에 맞추어 질문하고, 추후 심층적 질문을 한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어린 시절 각각의 부모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5개의 형용사를 표현하게 하고, 각 형용사를 선택하게 된 기억(사건들)에 대해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면접대상자는 어떤 부모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는지, 왜 그러는지, 어린 시절 거부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위협한 적이 있는지(떠나겠다던가 아니면 내쫓겠다), 어린 시절 부모가 왜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인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외 주요 상실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접은 1997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낯선 상황에서의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험이 다 끝난 후 경희대학교 아동연구실이나 연구대상자의 가정에서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였기 때문에 연구보조자가 면접

2) 본 연구에서는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를 내적 실행모델에서의 개인차로서 재개념화한 Bowlby(1982)의 개념을 채택하여 애착관계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인 표상인 내적 실행모델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영아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이 애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어머니의 경우에는 내적 실행모델을, 영아의 경우에는 애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장소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돌보아 아이로 인해 면접이 중단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모든 면접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전 과정을 녹음하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30분이었고 평균 45분 정도였으며, 처음에는 녹음된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했으나 면접 중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면접된 내용은 전사하였으며 면접내용의 분석은 전사본(transcript)만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의 분류는 Main과 Goldwyn(1993)의 분류체계에 따라 2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피면접자의 아동기 경험을 평정하는 3가지의 하위영역(부모의 사랑, 거부경험, 역할 전도 혹은 매우 관여하는 부모)과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평정하는 5가지의 하위영역(부모에 대한 이상화, 아동기 회상의 어려움, 부모에 대해서 표현된 분노, 애도나 상처에 대한 미해결, 진술의 일관성)에서 5점 척도[3]로 평정되었다. 둘째, 평정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4가지 유형(안정-자율, 불안-거부, 불안-집착, 불안-미해결/비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성인 애착 면접에서의 내적 실행모델은 아동기 애착안정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의 영향이 회상되고 평가되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경험의 본질 자체보다는 이러한 경험이 전달되는 방식이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분류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분석은 Main과 Goldwyn(1993)이 언어철학자 Grice의 협조적인 담화(cooperative discourse)의 개념을 면접분석에 적용한 것으로, 안정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애착경험을 잘 통합하여 과거 경험을 전달할 때 매우 일관적인 반면에 불안유형의 사람들은 논리적, 실제적 모순이나, 애착주제에 머무르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비일관적 담화를 보인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면접자의 경험, 사고, 애착대상에 대한 감정 등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묘사하고 과거의 사건에 대한 피면접자의 설명이 읽는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들릴 때 일관성이 있다고 고려된다. 진술의 일관성은 면접 전체에서 검토된다.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한 내적 실행모델의 분류는 8가지 하위영역에서의 점수를 고려하여 Main과 Goldwyn(1993)의 분류준거와 가장 유사한 유형으로 질적 분류되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다(표 1참조).

분석은 본 연구자와 애착연구의 경험이 있는 아동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이 수행하였는데, 전사본을 함께 읽고 평정척도와 유형분류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였다. 처음 10개는 함께 분석하면서 평정척도 적용 문제를 토론하여 유형분류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10개는 두 분석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따로 분석한 10개의 전사본만을 가지고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영역에서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60-.93이었고, 유형분류에서는 .80이었다. 초기 평정과 후기 평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처음 10개의 사례를 다시 평정한 결과 각 척도에서의 일치도는 .87-.93이었으며, 유형분류에서는 전부 일치하여 매우 신

3) 원래 Main과 Goldwyn(1993)의 분류체계에서는 9점 척도로 평정하나 9점으로 세분하였을 때 문화적으로 적합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애착연구를 하였던 전문가와 논의하여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낯선 상황 절차 중 영아가 혼자 남는 상황인(긴장이 최고로 달하는) 제 6 에피소드에서 영아가 너무 울어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제 6 에피소드는 생략하였다. 또한 각 에피소드에서 소요되는 3분이라는 시간은 실험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나라 영아에게 너무 길다고 여겨졌으며, 낯선 상황 실험 후 민감성 실험을 위해 실험이 5분 정도 더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에피소드를 2분으로 단축하였다(박응임, 1994; 이영환, 1993 참조).

<표 1> 성인 애착 면접에서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과 대응되는 낯선 상황에서의 영아의 행동

성인 애착 면접에서의 내적 실행모델	낯선 상황에서의 영아의 행동
안정-자율(F) 면접동안 일관적이고 협조적인 담화. 애착을 가치롭게 여기고 특정 사건과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이다. 애착관련 경험에 대한 기술과 평가가 일관적임	안정(B) 격리 전 주변을 활발히 탐색한다. 재결합시 능동적으로 부모를 반기며, 보통 영아가 신체적 접촉을 주도한다. 부모에 의해 쉽게 달래짐.
불안-거부(Ds) 애착관련 경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부모를 이상화하고 아동기 애착관련 기억이 없음을 표명함. 면접동안 비일관적임.	불안-회피(A) 격리시 울지 않으며 혼자 남겨져서도 놀이를 계속한다. 재결합시 능동적으로 회피하며 신체적 접촉을 추구하지 않고 실험동안 장난감에 더 주의함.
불안-집착(E) 과거 애착관련 경험과 관계에 몰두하며 애착관련 경험에 대한 제시가 비일관적이고 평가 또한 혼란 되어 있음. 때때로 부모에게 화를 표현함.	불안-저항(C) 격리 전부터 걱정스러워하거나 당황하며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재결합시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다시 탐색하지 않음.
불안-미해결적/비조직적(U/d) 애착대상의 상실과 학대의 경험을 논의하는 동안 멈춤이 있고 인지적으로 비조직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세 범주로 나눌 때는 위의 세 유형으로 재분류됨.	불안-비조직적/비일관적(D) 부모의 면전에서 비조직적이고 비일관적인 행동을 나타냄. 재결합시 지나치게 울면서 매달리거나 얼굴을 돌리고 기대어 서있거나 한다. 세 범주로 나눌 때는 위의 세 유형으로 재분류됨.

출처: George 등, 1996

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유형분류가 불일치한 경우 토의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낯선 상황 절차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은 Ainsworth 등(1978)이 개발한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4]. 본 실험에 앞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3쌍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고, 예비실험에서 얻은 경험과 결과들을 토대로 각 에피소드의 시간과 어머니와 낯선이의 일부 행동,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영아의 위치, 장난감의 수 등을 수정하였다. 본 실험은 경희대학교 아동연구실에서 1997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대학원생 2명이 실험보조자와 낯선이로 실험에 참여하였고 연구실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였다.

영아 애착유형의 분류는 Ainsworth 등(1978)이 기술한 절차에 따라 2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두 번의 재결합 에피소드에 있어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상호작용 행동지표가 되는 4개의 변인(접근

과 접촉 추구, 접촉 유지, 회피, 저항행동)을 7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둘째, 영아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행동 4개의 변인에 대한 평정을 근거로 하여 Ainsworth 등(1978)의 애착유형분류 준거와 Main과 Solomon(1990)의 비조직/비일관적유형에 대한 지표에 따라 영아의 애착유형을 4개의 유형(안정애착, 불안-회피애착, 불안-저항애착, 불안-비조직/비일관적 애착)으로 분류하였다(표1참조).

영아의 애착유형의 분류는 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 분류결과를 알지 못하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명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낯선 상황 실험 연구를 하였던 연구자에게 훈련받았는데, 그 연구자의 연구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면서 평정점수가 일치하도록 훈련하였다. 연구대상 사례의 반은 함께 평정하였고 반은 각자가 따로 분석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7점 척도로 평정된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변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변인에서 .82-.98의 신뢰도를 나타내었고 애착유형 분류에서는 .90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유형분류가 불일치한 경우 토의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Smith와 Pederson(1988)의 질문지 상황 실험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측정은 Smith와 Pederson(1988)의 질문지 상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낯선 상황 실험에 연이어 실험되었다. 질문지 상황은 Smith와 Pederson이 영아가 어머니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신호를 보낼 때 어머니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영아의 반응요구와 연구자의 요구(질문지에 대한 응답)가 동시에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낯선 상황 실험이 끝난 후 아이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다시 탐색이 시작되면 실험자가 들어가 실험이 끝났음을 알리고 어머니들에게 간단한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요구하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측정을 위한 질문지 상황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질문지 상황은 5분 정도 계속되었는데, 어머니가 질문지를 받고 실험자가 나간 시점부터 3분 동안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어머니의 민감성 평정은 Smith와 Pederson (1988)의 평정방법을 참고로 하였는데, 3분간의 질문지 상황을 5초 간격으로 나누어 총 36 에피소드 동안 영아의 행동(울기, 훌쩍이기, 소리내기, 미소짓기, 어머니 얼굴 바라보기, 어머니에 대한 접근, 접촉)과 어머니의 행동(소리내기, 영아 바라보기, 손 내밀기, 만지기, 들어올리기, 안아주기)의 발생빈도를 기록하였다[5]. 이 기록을 토대로 영아가 반응을 요구한 에피소드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적절하게 반응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영아의 반응요구가 있었던 에피소드에서 어머니가 적절한 반응을 한 에피소드의 비율을 산출하여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측정치로 사용하였다[6]. 어머니의 적절한 반응은 영아의 반응요구가 있을 때 위의 어머니의 행동 중 하나를 하여 영아에게 반응하는 것이며, 영아의 요구행동이 10초 이상 지속될 때는 어머니

5) 원래 Smith와 Pederson(1988)의 연구에서는 3분을 3초 간격, 60에피소드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3초는 행동의 연결과정에서 반응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 너무 짧아서 본 연구에서는 5초 단위로 분석하였다.

6) Smith와 Pederson(1988)은 어머니의 반응을 적절, 불충분, 간섭적 등의 세 가지 반응으로 평정하였으나, 적절한 반응에는 영아가 어머니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 어머니가 반응을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간섭적 반응을 한 어머니의 경우는 한 사례도 없어 본 연구에서는 영아가 반응을 요구했을 때 어머니가 적절한 반응을 했는가 만이 고려되었다.

의 행동도 반응 강도가 큰 다른 유형의 반응이 있어야만 적절한 반응으로 간주하였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분류와 낯선 상황 분류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2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반복 관찰하였으며, 적절한 반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시간과 행동의 흐름을 고려하도록 많은 토론을 하여 훈련하였다. 연구대상의 반은 같이 분석하였고 반은 따로 분석하여 평정자간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신뢰도는 .80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포, 백분율, 산술평균, 분할표 검증, χ^2 검증, 분산분석, 등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의 분포를 보면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은 안정유형인 자율유형이 60%로 가장 많았고, 불안유형인 거부유형이 20%, 미해결/비조직유형이 15%, 집착유형 5%의 순이었다. 미해결 유형을 재분류한 3범주 분류에서는, 자율유형은 변화가 없고, 미해결/비조직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사람 중에 1명은 거부유형으로, 2명은 집착유형으로 분류되어 25%의 사람이 거부유형으로, 15%의 사람은 집착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AI를 이용하여 연구한 33개의 연구를 가지고 내적 실행모델 유형을 메타분석한 Bakermans-Kranenburg와 van IJzendoorn (1996)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비임상적 집단의 경우 3범주 분류에서는 자율유형이 58%, 거부유형이 24%, 집착유형이 18%였고, 4범주에서는 자율유형 55%, 거부유형 16%, 집착유형 9%, 미해결/비조직유형이 19%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표 2>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 분포

단위 : 명(%)

내적 실행모델 유형		3 범주	4 범주
안정유형	자율(F)	12 (60)	12 (60)
불안유형	거부(Ds)	5 (25)	4 (20)
	집착(E)	3 (15)	1 (5)
	미해결/비조직(U/d)	-	3 (15)
전 체		20 (100)	20 (100)

2.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은 전체 20명 중 안정애착이 13명(65%), 불안-회피애착이 5명(25%), 불안-저항애착이 2명(10%)으로 나타났으며 비조직/비일관적 애착은 한 명도 없었다.

<표 3>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 분포

애착 유형	사례수	백분율
안정애착(B)	13	65
불안-회피애착(A)	5	25
불안-저항애착(C)	2	10
비조직/비일관적애착(D)	0	0
전체	20(명)	100(%)

3.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 유형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과 영아의 애착유형과의 일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7]와 같다. <표 4>를 보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자율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12명이었는데, 그 중 75%인 9명 어머니의 자녀가 안정유형으로 나타났고, 2명은 회피유형으로, 1명의 경우는 저항유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거부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사람은 4명이었는데 2명은 그들의 자녀가 회피유형으로, 2명은 안정유형으로 나타났다. 집착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어머니의 아이는 안정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되었던 3명의 어머니의 경우는 그들의 자녀가 안정, 회피, 저항유형으로 각각 분류되었다.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과 영아의 애착유형과의 일치율은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4개 유형과 영아 애착유형 3개 유형간에는 55%의 일치

<표 4>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 유형의 일치

단위 : 명(%)

영아 애착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전체
	자율	거부	집착	미해결/비조직	
안정	**9** (45)	2 (10)	1 (5)	1 (5)	13 (65)
회피	2 (10)	**2** (10)		1 (5)	5 (25)
저항	1 (5)			1 (5)	2 (10)
전체	12 (60)	4 (20)	1 (5)	3 (15)	20 (100)

* 음영 부분은 유형이 일치된 경우임

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간의 일치율이 유의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을 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20명인 관계로 1명이나 2명이 있는 칸(cell)이 생겨 χ^2 검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일치율은 빈도와 백분율로만 제시하였다.

율을 나타내었다. 즉 안정 유형에서 아홉 사례(75%), 거부 유형에서 두 사례(50%)가 어머니의 유형과 영아의 유형이 일치되었으며 집착유형과 미해결/비조직유형은 일치하는 사례가 없었다. 미해결/비조직유형의 경우, 영아 애착유형에서 비조직/비일관적유형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었다.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을 안정유형과 불안유형 2개의 범주[8]로 나누었을 때는 65%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어머니가 안정 유형이면서 영아도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모두 9쌍으로 45%였으며, 어머니가 불안유형이면서 영아도 불안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4쌍으로 20%였다. 어머니가 불안유형이었으나 영아가 안정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4쌍으로 20%였으며 반대로 어머니가 안정 유형이나 영아가 불안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는 모두 3쌍으로 15%였다.

4. 어머니의 민감성과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및 영아의 애착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민감성 점수[9]의 평균은 48. 94(SD=26.70)였으며 가장 민감하지 못한 어머니의 경우 6.30이었고 가장 민감하였던 어머니의 경우 80.0이었다. 이렇게 측정된 어머니의 민감성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집단 및 영아의 애착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산분석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를 보면 어머니의 민감성은 집착유형의 어머니가 가장 높았고 미해결/비조직유형과 자율유형의 순이었으며, 거부유형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에 따른 어머니의 민감성 평균과 분산분석

내적 실행모델 유형		민감성 평균	F값
안정유형	자율(n=12)	51.28	
	거부(n=4)	32.03	.90
불안유형	집착(n=1)	62.50	
	미해결(n=3)	57.77	
	전 체	48.97	

<표 6>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평균과 분산분석표

영아의 애착유형		민감성 평균	F값	scheffé 사후검증
안정유형	안정(n=13)	62.22		ㄱ>ㄴ
불안유형	회피(n=4)	17.04	10.42*	ㄱ=ㄴ
	저항(n=2)	42.65		ㄱ=ㄷ
	전 체	48.97		

*p<.001

<표 6>을 보면 어머니의 민감성은 영아 안정애착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저항애착 집단, 회피애착 집단의 순이었다. 안정애착 집단의 어머니들은 회피애착 집단의 어머니들보다 영아의 반응요구에 세 배 이상 더 적절한 반응을 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8) 안정/불안 두 유형 일치는 어머니 안정유형 집단과 영아 안정유형 집단의 일치의 경우와 어머니 불안유형(거부, 집착, 미해결/비조직)집단과 영아 불안유형(회피,저항집단)간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9) 민감성 점수는 (반응이 요구될 때 적절한 반응을 한 에피소드/반응이 요구되는 에피소드)×100으로 측정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자녀 간 애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부모 특성의 연구와 부모 자녀 세대간 전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을 평가하고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또한 부모 자녀 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행동적 연계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여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민감성을 통해 중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은 60%의 어머니가 안정-자율유형으로, 20%의 어머니가 불안-거부유형으로 그리고 5%의 어머니가 불안-집착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불안-미해결/비조직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은 15%였다. 이러한 분포는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1996; Benoit & Parker, 1994; Crowell & Feldman, 1991; Deklyen, 1992; Fonagy et al., 1996; Ward & Calson, 1995)에서 나타난 분포와 비슷하였고, 특징 또한 Main과 Goldwyn (1993)의 분류준거에서 나타난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같은 척도를 가지고 연구한 최해훈, 이경숙과 김태련(1998)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안정유형이 47%, 거부유형이 10%, 집착유형이 33% 미해결/비조직유형이 10%로 본 연구보다 안정유형, 거부유형이 적은 반면 집착유형은 많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으로 키워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들의 양육경험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신체적 접촉이 많지 않았으며(이것은 거부유형 뿐만 아니라 안정유형의 사람들도 이것을 언급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할 전도나 부모의 지나친 관여가 없었음을 진술하였으며 현재 부모에게 의존적이 아님을 나타내어 외국에서 나타난 분포와의 차이를 문화적 차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 분포가 외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설명은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은 20명의 영아 중 65%인 13명의 영아가 안정유형에 속했으며 25%인 5명의 영아가 불안-회피유형이었고 10%인 2명의 영아가 불안-저항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불안-비조직/비일관적유형은 없었다. Main과 Solomon(1990)은 세 유형으로 분류한 이전 연구들의 테이프를 재분석하여 연구대상 중 12.7%가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으로 판명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Main과 Solomon (1990)의 분류 준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지만 비조직/비일관적애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중류계층만을 대상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낯선 상황을 이용하여 연구한 국내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살펴본 유효순(1985)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이 56%, 회피애착이 29%, 저항 애착은 15%로 나타나 본 연구에 비해 안정애착이 적으나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조직적/비일관적 유형을 포함하여 4유형으로 분류한 박응임(1994)의 연구에서는 안정애착이 78.2%, 회피애착이 16.4%, 저항애착이 1.8%,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이 3.6%로 본 연구보다 안정애

착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고 회피애착이나 저항애착이 적은 반면 본 연구와는 달리 비조직적/비일관적 애착이 3.6%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박응임(1994)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하류계층을 포함하고 있어 중류층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비조직/비일관적 유형의 경우 하류계층이나 학대가정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하류계층을 포함하여 조사한 박응임(1994)의 연구에서도 비조직/비일관적 유형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아 애착 유형의 4가지 유형분류가 타당성을 지니는지 좀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간의 일치도는 안정/불안 두 범주로 나누었을 때는 65%였고, 세 범주, 네 범주로 나누었을 때는 55%였다. van Ijzendoorn (1995)은 낯선 상황에서의 특정 부모에 대한 영아의 반응과 성인 애착 면접에서의 부모의 유형을 비교한 18개의 표본에 대하여 메타 분석한 결과, 안정/불안 두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는 75%의 일치율을 나타내었고 3가지 유형의 일치는 70%, 4가지 유형의 일치는 63%라고 보고하였다. 같은 척도를 가지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해훈 등(1998)의 연구에서는 4가지 유형의 일치에서는 67%의 일치율을 나타내었고, 안정/불안 두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는 70%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보다 일치율이 조금 낮게 나타나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유형 간의 관계가 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의 선행연구들 모두 유형의 일치는 안정 유형에서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안정 유형의 경우가 가장 많은 일치를 보여 선행연구들의 일치경향과 유사하였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내적 실행모델을 유지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간의 이러한 세대간 전이는 애착발달이 전생애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모 자신의 양육경험을 통해 형성된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안정유형인 어머니 중 3명은 불안애착아를 가졌으며, 불안유형의 사람들의 경우 영아의 애착유형이 안정유형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불안유형 중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어머니-영아 짝은 2개의 사례였고 나머지 6명의 경우 안정애착과 또 다른 불안애착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불안유형의 경우 안정유형보다 유형의 일치가 적은 것은 외국의 연구(Crowell & Feldman, 1988; Zeanach et al., 1993; Deklyen, 1992)에서도 나타나는 결과로써 특히 집착유형의 경우 일치도가 낮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1명뿐이었으나 유형이 일치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유형에서 비일관/비조직적유형이 한 사례도 없는 반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미해결/비조직유형인 경우가 3명이어서 유형의 불일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서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외의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iden 등(1995)은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부부적응도 그리고 애착 Q-set(Waters & Deane, 1985)을 사용하여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은 어머니-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관계가 있었으며, 부부 적응도와 아동의 애착 안정성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과 부부 적응도는 아동의 행동,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상호작용 하였는데, 안정유형 어머니의 경우는 부부 적응도가 아동의 애착 안정

성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불안 유형의 어머니들의 경우 부부 적응도가 낮을 경우 애착 안정성 점수가 더 낮았다. 부부관계는 어머니에게 정서적 실제적 지원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Nezworski, Tolan과 Belsky (1988)는 파트너나 상담자와의 긍정적인 애착 경험은 불안애착 표상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높은 질의 부부관계가 영아-양육자 간의 애착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불안 애착 표상을 보상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연구하기 위하여서는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 뿐만 아니라 가족 상호작용, 사회적지지, 어머니의 자원부족, 스트레스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Feiring, Fox, Jaskir, & Lewis, 1987). 더불어 한 개인의 환경변화를 좀더 자세하게 추적하여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의 변화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성인 애착 면접에서의 반응은 인성 스타일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경험을 더 적게 회상할 수도 있어 아동기가 부모의 무관심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 이것은 회상에서 정확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된 서술이나 일관성의 정도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Fox, 1995). 따라서 성인 애착 면접과 영아의 애착분류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부모의 기질, 인성특성, 아동의 기질, 발달과 양육에 대한 신념)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어머니의 민감성은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유형의 어머니들이 불안유형의 어머니들보다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신호에 민감하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Ward & Carlson, 1995; Grossmann et al., 1988; Eiden et al., 1995)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징과 실제의 어머니의 행동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실험상황이 너무 짧아 실험상황에서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실험시의 영아의 상태나 녹화된다는 사실, 어머니의 기분 등이 어머니가 영아와의 상호 작용할 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가정에서의,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관찰을 통한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의 분석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민감성이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영아의 애착유형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이영환(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영환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 집단과 불안애착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불안애착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유사한 실험상황과 분석방법을 사용한 박웅임(199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박웅임은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의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연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의 실험상황에서의 관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가정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평정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어머니의 민감성이 영아의 애착유형과는 관계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영아 애착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행동적 연계과정으로서의 설정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행동적 요소로 나타나는데 여러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민감성 외에 다른 요인이 세대간 전이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

델과 관련한, 좀더 정교하게 세분화된 부모-영아 상호작용 분석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될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함이 밝혀졌다. 또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유형과 영아의 애착유형간의 일치는 초기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애착의 내적 실행모델이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지속되어 다음 세대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었다. 즉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안정적인가 하는 것이 영아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성인 애착 면접과 낯선 상황을 이용한 연구가 애착의 발달과 세대간 전이를 연구하는데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중류계층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특히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은 교육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류계층 사람들의 내적 실행모델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내적 실행모델은 변화하기 어렵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겪기도 한다. 현재, 영아기 이후의 애착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타당한 연구방법을 통한 개인의 내적 실행모델의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 사람의 내적 실행모델의 변화의 양상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것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영아의 애착유형, 어머니의 민감성 측정은 많은 훈련과정을 거친 연구자들의 평정이 요구된다. 훈련된 애착 연구자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의 평정은 여러 명의 평정자를 필요로 한 만큼 충분히 신뢰로운 평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청된다. 또한 내적 실행모델을 측정하는 면접이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면접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양적 질적 분석방법을 병행하는)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 애착 면접의 경우 질문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아동기 애착 경험에 대한 무의식적인 내면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면접과 전사에 소용되는 시간이 너무 많으며, 또한 면접과 평정에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고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특히 애착대상의 상실과 학대경험의 해결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평정과 좀더 객관적인 수량화를 위한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애착 유형의 세대간 전이뿐만 아니라 애착 유형의 세대간 격차(transmission gap)의 원인과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은 영아의 애착유형과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은 짝도 발견되었는데, 특히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이 안정유형이나 불안 애착아를 가졌던 어머니의 경우나 어머니가 불안 유형이나 안정 애착아를 가진 경우 애착형성에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 외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족 상호작용(남편이나 조부모들의 지지적 행동)이나 어머니, 아동의 기질, 인성특성 등을 같이 연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개념화 즉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을 면접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내적 실행모델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부정적 양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영아의 애착을 동시적으로 측정함으로

써 애착의 발달과 부모-자녀 세대간 전이의 양상을 밝힘으로써 보다 나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 그리고 둘 간의 행동적 연계과정으로 영아의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동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박영숙(1994). 심리평가의 실제. 서울: 하나 의학사.

유효순(1985). 애착유형과 탐색행동과의 관계.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영환(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유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미(1997).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수(1995). 어머니의 애착과 아동의 애착행동.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 131-142.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fendency and attachment: a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1996).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fathers, adolescents, and clinical groups: A meta-analytic search for normative dat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8-21.

Benoit, D., & Parker, K. C. H.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7.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New York: Basic.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Bretherton, I. (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P. Marris, J. Stevenson-Hinde & C. Parke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 9-32). New Work: Routledge.

Bretherton, I. (1992). The origin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75.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 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121-16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Crowell, J. A., & Feldman, S. S. (1991). mothers'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mother and child behavior during separation and reun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97-605.

Deklyen, O. M. (1992). Childhood psychopathology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 comparison of normal and clinic-referred disruptive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Eiden, R., Teti, D. M., & Corns,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Feiring, C., Fox, N. A., Jaskir, J., & Lewis, M.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infant risk statu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00-405.

Fonagy, P. , Steele, H. ,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of age. *Child Development, 62*, 891-905.

Fonagy, P. , Steele, H. , & Steele, M. (1996).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classifications of mothers, fathers, and their infants: Evidence for a relationship-specific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7*, 541-555.

Fox, N. A. (1995). Of the way we are: Adult memories about attachment experiences and their role in determining infant-parent relationships: A commentary on van Ijzendoorn (1995). *Psychological Bulletin, 117*, 404-410.

George, C. , Kaplan, N. , & Main, M. (1984, 1996).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Grossmann, K., Fremmer-Bombik, E., Rudolph, J., & Grossmann, K. E.(1988).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as related to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maternal care during the first year. In R. A.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 between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241-260).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Isabella, R. A. (1993). Origins of attachment: Maternal interactive behavior across the first year of life. *Child Development, 63*, 859-866.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Main, M., & Goldwyn, R. (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 Implications for the abused-abusing intergenerational cycle. Special Issue: Infant mental health-from theory to intervention. *Child Abuse & Neglect, 8*, 203-217.

Main, M., & Goldwyn, R. (1993).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ckely.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3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21-16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Morris, D. (1980). Infant attachment and problem solving in the toddler: Relations to mother's family histor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Nezworski. T., Tolan, W., & Belsky, J. (1988). Intervention in insecure infant attachment.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352-386). Hillsdale, NJ: Erlbaum.

Ricks, M. H. (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Attachment across gener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211-227).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Smith, P. B., & Per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 76-99.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Ward, M. J., & Carlson, E. A. (1995). Associ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maternal sensitivity, infant-mother attachment in a sample of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66*, 69-79.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3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Zeanah, C. H., Benoit, D., Barton, M. Regan, C., Hirschberg, L., & Lipsitt, L. (1993).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in mothers and their one-year-old infa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 278-286.